

탐방객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 북한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이상배(李相培)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 사무소장

2007년 1월 1일을 기하여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되었다. 국립공원의 공공성 제고와 사회적 갈등 해소, 국민에게 문화휴식 공간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입장료 무료화가 시행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년에 비해 탐방객이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북한산국립공원은 도심속의 공원으로 오래전부터 많은 시민들의 심신 단련과 휴식 장소로 사랑받아 왔으며, 그 간 입장료 부담으로 다른 산을 찾던 사람들이 북한산을 다시 찾으면서 지구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 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국립공원이 국민의 심신단련과 휴식처로 새롭게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탐방객 증가와 비례하여 무질서한 탐방 행태와 자연자원 훼손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강도 높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연중 끊이지 않는 탐방객은 몇 해전 이미 500백만 명을 넘어섰고,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공원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기도 하였다. 무분별한 이용으로 만들어진 수 많은 탐방로와 샛길, 이로 인한 탐방로 주변부 식생 훼손

과 동물생태계의 단편화, 여름철 계곡 이용 욕구 등은 그간 자연휴식년제 시행과 각종 보호·단속을 통해서도 근절이 어려운 여건이었으며, 이번 입장료 폐지로 인해 늘어난 탐방객은 기존의 여러 위협 요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의 생태계 보호와 탐방문화 정착은 장단기 대책 수립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필요로 하며, 단기 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도



북한산 백운대 시인마을 개소식 (2007. 1. 1)

북한산사무소에서는 불법·무질서 행위의 근절과 탐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사업 계획 및 실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불법·무질서 행위의 강력한 단속이다. 탐방객 증가와 비례하여 자연자원 훼손 위협과 무질서한 탐방 행태도 증가하고 있다. 입장료 폐지와 함께 국립공원을 처음 찾은 탐방객은 국립공원에서의 탐방수칙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자기만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탐방객이 집중되는 거점 52개소(고지대 9, 중간지대 2, 저지대 41)에 주말 등 공휴일에는 평균 80여명을 고정 배치하여 탐방객 안내·계도, 불법행위 단속, 주변 청소, 시설물 점검 등 종합적인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거점 지역 외 특별 보호구 및 비지정 탐방로 출입, 흡연, 오물투기 등 위법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지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적발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007년 4월까지 23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작년대비 4배 증가하였다.

또한 계절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지 및 언론보도, 탐방지원센터·통제소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단속 사전 예고 실시 후 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단속 등 현장 관리 강화의 역할 추진을 통해 위법 행위의 근절은 물론 국립공원에 오면 어디에서나 직원을 만나 탐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탐방서비스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기존 국립공원 입장료 매표소를 대국민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시설로 새단장 하였다. 총 45개 매표소 중 7개는 시인마을 및 탐방지원센터로 전환하였고 나머지는 자연자원 보호와 산불 감시, 안전 관리를 위한 통제소로 운영하고 있다.

시인마을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시 한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입장료 폐지 이후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 단계 질 높은 서비스로 국립공원 탐방객의 정신건강에 기여하고 나아가 친환경적인



시인마을 개소식 후 탐방객과 시집 나누기 행사 모습 (2007. 1. 1)

탐방문화 정착을 위한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다. 또한 생물도감을 비치하여 동식물 자원에 대해 현지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탐방프로그램 예약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탐방 수요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탐방객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지도(Health map)를 제작할 계획이다. 북한산은 일부 지역에 과도하게 탐방객이 편중되어 혼잡으로 인한 불만 초래 등 관리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탐방객 이용행태 조사결과 약 50%의 탐방객은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하고 있으

로 기존에 거리, 위치 중심으로 표시했던 안내지도 외에 탐방객의 관심사에 맞추어 주요 탐방로별 경사도, 난이도, 칼로리 소모량, 정신건강 기여도 등을 표시한 건강지도를 제작하여 본인의 능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건강과 함께 자연스럽게 비선호 구간으로 탐방객 분산을 유도하여 다소나마 탐방객을 줄여보고자 한다.

넷째, 주5일 근무의 본격 실시로 사회 여건이 변

하여 셋길통제 유도 효과 및 자연친화적이면서 다니기 편한 탐방로 시범 조성으로 탐방객에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에는 탐방로 수요 분석을 통해 연차적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정기적 대책으로는 2002년부터 시행중인 북한산 자원모니터링 조사 자료를 토대로 고유생태계를 보호하고 훼손 요인을 저감·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과 관리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



정릉 시인마을 및 탐방지원센터 모습 (2007. 1. 1)

화하고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인해 암벽등반, 리찌 등 산악 레포츠 동호인이 지속 증가하면서 각종 안전 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산악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산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 11월까지 시민안전교실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험 통제시설 보강, 통제요원(안전관리반) 배치, 산악단체와 협정 체결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섯째, 시범 탐방로 조성이다. 주 탐방로 중 일부 구간을 선정하여 훼손 부분과 주변 지역의 복원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집중적 복원사업을 시행

를 들면 탐방로의 훼손이 심화되어 가는 구간은 인위적인 복구 공사와 더불어 더 이상 훼손 확산을 줄이기 위하여 보호구역 설정 등 북한산의 관리 여건에 적절한 방침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 스스로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탐방 교육과 홍보 전략이다. 자연환경 보호는 한 사람의 부주의한 행동이 수 백, 수 천 사람의 노력을 허사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탐방예약제 또는 총량제 실시로 인위적인 탐방객 조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금년도 북한산에 진달래와 개나리의 개화는 3월 20일을 전후로 전 지역에서 관찰되었다. 미기상(微氣象 : 식물의 잎 주위 등 미세한 공간에 있어서의 온도, 습도 등 기후)의 차이에 따라 3월 첫째 주부터 꽃망울 형성과 개화를 시작한 지역도 있었지만 북한산 전체적으로는 3월 20일경부터 기록하였다. 물론 서울 도심의 꽃소식은 이보다 빨랐으며, 꽃소식은 더 이상 남녘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사이 중부지방은 남부와 비슷한 시기 혹은 더 빠르게 봄꽃의 개화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등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용어에 의한 것이며,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대기오염에 의한 열섬 현상(Heat island : 인공열과 대기오염 등에 의해 도시 상공의 기온이 높아진 것을 말함)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오염은 이렇게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각종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게 완충정화 작용을 해주는 것은 자연이다. 그것도 잘 보존된 건강한 자연만이 그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007년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원년이다. 국립공원의 주인은 국민임을 재삼 강조한 것이며, 역설적으로 주인인 우리는 당연히 국립공원의 자연

을 아끼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산은 금년 5월 1일부터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and 친환경적인 탐방문화 유도를 위하여 “공원내 쓰레기 수거함 철거” 와 자기쓰레기 되가



북한산 진달래 (2007. 3. 20)

져가기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인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국립공원 사랑과 환경 보호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약력

- 경북예천에서 남(1956년)
- 상지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국립공원관리공단 보전조사처장, 예산부장, 한려해상동부, 치악산, 사무소장 역임.